

## 토론 요지

## 수도권 집중과 사회·경제적 격차에 대한 의견

박 경 | 목원대학교 교수

저는 주로 마강래 교수 및 강은택 교수의 논문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함.

이 논문은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람이 이전하지 않은 사람보다 소득이 높고 이것이 자녀 세대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단순 명료하게 보여 줌으로써 수도권 집중 폐해를 지적하고자 함. 특히 한국노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수도권으로 이동한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 간에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잘 들어내고 있음.

그러나 이 논문은 소득과 인구 이동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춘 논문으로서 내용적으로는 이미 많이 제기되었음. 이 논문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그간의 많은 국내 연구들도 소득과 교육기회가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에 의견이 일치함. 인구이동 요인을 경제적 요인(소득, 고용기회- Todaro), 비경제적 요인(삶의 질 등 사회적, 환경적 차이- Blomquist et al), 공공정책의 차이(지방세나 재정투자- Tiebout) 등으로 나누고 어떤 요인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연구는 그동안 많이 있었으며, 거의 모든 논문이 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함(김성태·장정호, 1997, 박성익, 2006 등). 다만 비경제적 요인이나 공공정책의 차이는 혹은 연구자에 따라 효과가 있거나(김현아, 2008), 혹은 불확정(박성익, 2006)하다고 의견이 나뉨.

위의 연구들이 이 논문과 차이가 있는 점은, 기존의 연구는 소득 격차를 인구이동의 원인이라고 파악한 반면에, 이 논문은 수도권으로의 이동 결과로서 파악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관련된 논란은 소득이 인구이동의 원인인가, 또 그 결과로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 보다는, 그 결과 발생한 소득격차가 수도권 집중의 폐해인가 아닌가 하는 해석과 관련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서승환, 김갑성(2004), 김종일(2010) 등은 인구증가에 의한 도시권역의 팽창은 그 자체로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고 산업기반을 확대하여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의 격차와 인구 유입은 집적효과와 규모경제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는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마찬가지로 2009년 세계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09)도 P. Krugman의 신경제 지리학을 인용하여 경제성장에 있어서 도시화의 이점을 강조하고, 지역정책의 방향은 오히려 인구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뒀야 한다고 주장함. 즉, 같은 현상을 가지고 수도권 집중을 옹호하는 입장과 우려하는 입장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

이런 문제의식에서 필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음.

가. 발표자들은 수도권 집중이 경제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김종일(2010), 2009년 세계개발보고서 등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대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음.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소득의 격차를 가져왔다는 논거만으로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수도권 규제완화를 바로 주장하기는 쉽지 않고, 추가적인 반박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경제적 요인 외에도 비경제적 요인(삶의 질), 공간적 초집중이 가져오는 경제 권력의 행사의 중심-주변부의 지배관계 등의 논의에도 주목해 봐야 하지 않는가 생각됨.

나. 아울러 이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소득 대비 주택가격 지수(PIR)도 상승하는데 왜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김현아(2008)는 수도권에 대한 지방공공재 투자의 확대(공공재 효과)가 거주비용을 절감시켜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져온다는데 이런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지에 대해 언급을 부탁드립니다.